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19.6



2천년이 넘는 순교 역사를 지닌 북아프리카 교회 _3쪽

“감독관을 쏴 죽이고 나도 따라 죽으려고 했어요.” _5쪽



폴리 부부가 전하는 글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의 사연을 듣고 나면, 우리는 보통 자문합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할까? 과연 신실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는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핍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통을 앓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가 육신육신 쑤실 때 우리의 발이 “하나님, 저는 하나도 아프지 않으니까 감사드려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몸 전체가 치통에 집중합니다. 치통을 치료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나도 저렇게 핍박받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묻는 대신 “지금 내가 핍박받고 있는데 무엇을 하지?”라고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지금 어디에선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도소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핍박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고, 지금 다른 일부가 핍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 가운데 일부만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예배하면 감옥에 가거나 더 심각한 고난을 겪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개국이 기독교를 제한하고 있고, 아시아인 3명 중 1명이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몸의 지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통을 겪는 우리 몸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웨브란트 목사님 Rev. Richard Wurmbrand은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체 일부가 너무 아플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후손들

기독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알제리에서 번성했다. 그러나 알제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아챈 뒤, 교회 11곳을 폐쇄했다. 이런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시모Simo 같은 기독교인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1990년대 초, 알제리는 일당제에서 다당제로 전환했는데, 놀랍게도 이슬람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이슬람 극단주의자 중심의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군부가 즉각 정권을 장악했고, 이에 맞선 극단주의자들의 반란이 6년간 지속됐다.

무슬림인으로 태어난 시모는 내란이 일어나는 동안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했다. 어느 날, 시모는 한 청년을 심문했다. 청년은 코란Quran과 예언자 무함마드Muhammad의 가르침을 인용해 자신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했다. 나중에 시모는



"전도에 대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믿으면 팝박받으니까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를 믿으면서 정반대되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정말 많다."

-북아프리카의 어느 기독교인

말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그 모든 폭력이 옳고 이슬람이 살인을 가르친다면, 그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고 따를 수 없다고 말이죠."

현지 무슬림 교사들이 기독교인을 모욕했을 때, 시모는 담대하게 맞서 기독교 신앙을 옹호했다. 무슬림 교사들은 시모를 폭행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시모는 병원에 가야했다. 그러나 무슬림에게 팝박받으면서 오히려 시모의 신앙이 더 튼튼해졌다.

시모는 카타르와 터키 정부가 카빌리Kabylie 지역에 새로 지은 이슬람 사원과 학교를 보았을 때,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e의 이름을 딴 기독교 변증 단체를 조직해서 투쟁하기로 결심했다. 시모는 '카빌리 사람들에게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잘 인식시키고, 그가 기독교인이자 그들과 같은 카빌리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알제리 정부는 단체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모는 알제리 기독교인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누구든지 믿음 때문에 고통과 박해를 받으시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에 그는 박해받는 형제자매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6년 7월, 시모는 예수님의 빛이 이슬람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이기고 있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체포됐다. 시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개월 복역했다. 시모는 지난해 초에 석방되었지만, 가족을 다 몰살하겠다는 위협을 여러 차례 받아 결국 다른 나라로 떠나야 했다.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김교신홈]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7길 15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한국 기독교 재정투명성협회
1호 인증



facebook.com/VOMKorea



twitter.com/VOMKorea



youtube.com/c/voiceofthemartyrskorea

2019년 6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	2
					인도네시아 “제 신분증을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바꾸도록 기도해주세요.” - 이슬람에서 회심한 기독교인	멕시코 기독교인 비율이 3퍼센트를 밀도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3	4	5	6	7	8	9
몰디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온전히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라마단 기간 종료일 무슬림들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기도해주세요.	에리트레아 기독교인 죄수 가족들이 경제적, 육체적,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아프가니스탄 전도와 양육 노력이 증대되고 계속 열매 맺도록 기도해주세요.	베트남 기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신자들이 이교도 집단의 가르침을 거부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멕시코 마을에서 추방당했는데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카파스주 산미겔시 기독교인들을 도해주세요.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에서 투르크멘어 성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기도해주세요.
10	11	12	13	14	15	16
oman 펌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교제하며 힘을 얻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라크 IS에게 추방당한 기독교인들이 집으로 돌아와 교회를 개척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나이지리아 극심하게 펌박받는 지역의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잘 돌보고 증인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지부티 아파르인들 사이에 복음이 계속 확산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스리랑카 기독교인들이 더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파키스탄 2018년 7월에 출범한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터키 라디오, 위성 TV, 인터넷 사역 같은 기독교 매체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17	18	19	20	21	22	23
몰디브 압둘라 야민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이 몰디브인에게 자유를 더 많이 허락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아프가니스탄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과 평화와 보호가 아프간 신자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주세요.	레바논 레바논 전역에 사역 팩(사역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담은 꾸러미)을 문제 없이 배포하도록 기도해주세요.	파키스탄 펌박당한 기독교인들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얻도록 기도해주세요.	몰디브 국외로 추방된 기독교인들이 용기 내어 복음을 전파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요르단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기독교인 난민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정부 지도자들이 이슬람 영향에 강경하게 맞서도록 기도해주세요.
24	25	26	27	28	29	30
이란 이란에 들어가는 다양한 매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쿠바 교회 지도자들이 갈수록 공격적으로 나오는 공산당에게 대항하게 대항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우간다 펌박받는 신자들을 우간다 교회가 지원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카타르 하나님의 지역 교회를 통해 역사하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신자를 낳도록 기도해주세요.	말레이시아 무슬림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담대한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지부티 왕족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기도해주세요.	케냐 북동부 교회들이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에 계속 담대하게 맞서도록 기도해주세요.

“감독관을 쏴 죽이고 나도 따라 죽으려고 했어요.”



북한 정부는 가족을 부양할 방법이 없던 G씨가 해외 공장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었다.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어둡고 습한 환경에서 일했고, 밤마다 비좁고 붐비는 숙소에서 생활해야 했다. 상처로 얼룩진 G씨의 손은 치료받지 못한 채 굳어 있었지만 감독관은 충분한 휴식이나 의약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노동자들 봉급을 대부분 가져갔다. 혹독한 환경에서 노동자 다수가 사망했고, 그들의 빈 자리는 금세 다른 이들로 채워졌다.

G씨는 어둠에 짓눌렸다.

“감독관을 쏴 죽이고 나도 따라 죽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VOM(Voice of the Martyrs)은 북한어로 된 오디오 성경을 G씨에게 은밀히 전달해주었고, G씨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얻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내 마음이 또 거워지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G씨는 말했다.

전 세계에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빛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북한에 보내는 사역을 돕고자 하는 분은 한국 VOM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vomkorea.com/campaign/read-nk-bible/>

최근 세계 소식

파키스탄

2017년 12월 17일, 퀘타Quetta에서 발생한 감리교회에 대한 공격으로 최소 11명이 사망했으며 50명이 중상을 입었다. AK-47 소총으로 무장한 자살 폭탄 테러범 4명이 벤엘 기념 감리교회Bethel Memorial Methodist Church로 다가갔는데, 테러범 중 한 사람만 가까스로 교회 입구에서 폭발물을 터뜨렸다. 나머지 테러범 중 하나는 교회 입구로 진입하다 총에 맞았으며, 두 명은 현장에서 도망쳤다.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들이 폭탄 테러 직후 퀘타를 방문하여 신자들을 격려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했다.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가 샤나즈Shahnaz라는 여성의 집을 방문했는데, 남편 이름은 파잘Fazal이었고 12월 17일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했다. 그녀는 그날의 비극을 회상하며 “그날이 남편의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라고 말했다. 샤나즈는 가족 이야기를 오래도록 나눈 게 처음이었다며 고맙다고 말했다. 나중에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는

말했다. “그 가족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최근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들이 라힙 칼리드Rahib Khalid의 집을 방문했다. 2018년 4월 17일, 이슬람 무장 대원 4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기독교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퀘타 인근 지역으로 돌진해 라힙과 다른 젊은 기독교인 청년에게 총을 쏘았다.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들이 라힙의 부모와 세 여동생을 만났을 때, 가족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라힙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자 너무 화가 나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들이 방문하고 얼마가 지난 뒤에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다. 라힙의 어머니는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며 가족들은 밤마다 함께 모여기도한다.



시간을 초월한 신실한 교회



데시우스Decius는 주후 250년, 신들에게 제사하여 분노를 달래주기 위해 칙령을 내렸다. 로마 제국 모든 백성은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바쳐야 했다. 한편, 카르타고(Carthage, 현재 튀니지) 교회는 주님을 안 지 3년밖에 안 된 전직 변호사 키프리아누스Cyprian를 감독으로 임명했다. 새로운 감독 키프리아누스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카르타고에 머물며 박해 당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맡은 교회에 지도력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박해를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때문 박해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결국 키프리아누스는 박해를 피해 도망가기로 결정했다.

먼 곳으로 떠난 키프리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을 돋고 격려하기 시작했다.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보내 돌보게 했고, 광산 노동을 선고받은 기독교인들에게 돈을 보냈다. 광산 노동을 선고받으면 열에 아홉은 살아오지 못했다. 251년 경, 데시우스의 팁박이 사그라들자 키프리아누스는 카르타고로 돌아와 아프리카에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신자들과 베르베르Berber족 침입자의 포로가 된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에 힘썼다.

몇 해가 지난 257년, 기독교가 학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레리아누스Valerian 황제가 다시 박해를 시작했다. 키프리아누스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결정했고 머지않아 추방되고 말았다. 발레리아누스의 박해가 심해지자 키프리아누스는 로마 신들과 국법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잠잠히 이렇게 답했다 “Deo gratias!” 라틴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다. 258년 9월 14일, 키프리아누스는 처형됐고, 이전에 순교한 많은 기독교인 무리에 들어갔다.

쿠바



쿠바 기독교인들은 공산당 정부가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여러 교단의 기독교인들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개정에 항의했을 때, 교단 지도자 한 사람은 “정부는 동성 결혼에 대한 교회의 반대를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가정 교회를 은밀히 폐쇄하고 괴롭히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이웃들이 교회 지도자에게 불평한다. 다른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교회를 부수거나 이전시킬 목적으로 교회를 비난하라고 압박한 탓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서 이웃들이 눈물을 머금고 인정하기도 한다.

한 교회는 여러 차례 강제 이전을 당하며 ‘움직이는 교회’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초 교회 지붕을 없애려고 했지만, 교회에 도착했을 때 많은 교인이 안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인들은 철거를 막기 위해 매일 24시간 동안 모여 교회를 지킬 것을 맹세했다.

쿠바의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은 말했다, “우리가 핍박받아도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쿠바의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보내고, 벌금을 대신 내주는 일 같은 지원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최전선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순교자의 소리 사역을 돋는 마이클Michael 형제는, 어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려고 10시간을 걸어 다니다보니 발이 통통 붓고 물집이 잡힐 때가 많다고 말해주었다. 이에 순교자의 소리는 선교사가 더 먼 곳까지 신속히 이동하며 여러 곳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돋고 양육하도록 오토바이를 지원했다.

마이클 형제는 무슬림 비율이 100%에 가까운 지역에서 현장 사역자 한 사람이 기독교인 미망인과 자녀들을 도왔다고 말했다. 미망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무슬림들이 그녀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자 그녀는 거부했다. 마을을 떠나라는 요구도 거부하자, 어느 날 밤 무슬임은 그녀의 집에 불을 질러버렸다.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 미망인은 아이들 손을 붙잡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다.

“에티오피아에서 보통 이런 일이 있는 경우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나요?” 마이클 형제가 물었지만 그녀는 “아뇨,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했다.

이 기독교인 여성은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했지만,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었다. 딱한 사정을 들은 현장 사역자가 다음 날 아침 오토바이로 40킬로가량을 달려와 순교자의 소리에서 지원하는 물품을 전해주었다. 그녀는 마을에 계속 살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많은 주민이 그녀의 말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 순교자의 소리는 에티오피아의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춰줄 뿐 아니라 박해 지역에 사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있다.



www.vomkorea.com에서 같은 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도록 돋는 일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탄자니아 Tanzanian 기독교인 앤드류 Andrew, 한때 기독교에 대항한 성전 Jihad에

가담하기도 했으나,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굳건한 전도자가 됐다.



한국 VOM에서 펼치는 사역을 지원하여,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일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https://vomkorea.com/donation/>

2쪽



에리트레아

기독교인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린다. 에리트레아의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체포되어 갇힐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교도소에 갇힌 상태이므로, 에리트레아 교회가 가장 시급히 요청하는 것은 제자 훈련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기독교인들이 현재 문화대혁명 Cultural Revolution 시대에 버금가는 강력한 박해에 부닥쳤다고 분석한다. 교회가 폐쇄되고, 기독교인들은 순전히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거짓 누명을 쓰고 구속되고 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아이들은 부모 없이 방치되고, 남겨진 가족들은 자신을 돌볼 여력조차 없다.



순교자의 가족들

어떤 사람이 순교하면 순교자 가족은 때로 심리적, 재정적 고통에 부닥친다. 우리가 그들을 돋지 않으면, 그들이 사는 마을 주민들은 순교자들이 거짓된 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순교자들의 남은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힘써 지원해주기 바란다.



스리랑카

부활절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도, 스리랑카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고 있었다. 스리랑카에서 일하는 한국 VOM의 동역자들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폭행하고 위협할 뿐 아니라 교회 건물과 가정

집(예배 장소로 사용되던)을 파괴하기도 한다고 보고한다.